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 골수기증자 보험금 지급 증가

□ 최근 보험회사들이 백혈병 등의 혈액 난치병 환자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한 사람 (골수 기증자)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됨.

- 골수 기증자는 의료비 관련 비용이 골수 수여자의 보험에서 지급되고 골수 이식이 질병치료 범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동안 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, 골수 이식 수술에 따른 교통비, 숙박비 및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골수 기증자의 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.
- 골수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2005년에 푸르덴셜생명이 업계 최초로 골수 이식수술 입원일당 담보가 담긴 상품을 시판하는 등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혜택을 확대한 결과 작년 한 해 지급액이 1,000만엔을 돌파함.

□ 보험업계는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향후 골수 기증자를 위한 다양한 담보 및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, 골수 이식에 대한 사회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골수 기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총 8개사로 집계되고 있으며, 특히 스미토모생명(일본보험회사)은 최초로 기증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 작년 9월부터 시판함.
- 주요 보험회사들도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험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신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골수 기증자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기증자 확산에 기여하는 등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, 저출산 및 고령화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중장기적인 차별화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/13)